

철학사

10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 개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용력입니다. 그렇다면 야구공이 날아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타석에 선 선수가 가하는 힘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생각할 때, 인과적 힘을 가진 어떤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생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힘 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단순히 효율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의 전체적인 결과를 설명하려면, 자연적인 과정이든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과정이든, 어떤 인공물이든 간에, 관련된 재료의 종류, 즉 영향을 받는 대상의 본질 또한 인과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무언가를 깎는 것과 돌로 조각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도 중요하고, 조각가의 솜씨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는 형식도 하나의 원인으로 취급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원인으로요. 그는 그것을 형식적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생산되는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토리가 점차 참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도토리는 참나무의 형태를 가질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원인이 도토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도토리의 본질을 지니지 않았다면, 참나무는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원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의 본질은 그것이 시작된 사물에 내재된 잠재력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원인의 본질에는 목적 지향성, 즉 목적 지향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재력 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잠재력.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네 번째 종류의 인과 요인, 즉 목적 원인을 추가했다.

텔로스, 즉 목표. 최종 목적.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가가 돌을 깎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미 그 예를 들어 효율적 원인(조각가의 깎는 작업)과 물질적 원인(나무가 아닌 돌)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원인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될 것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라면 말이죠 .

로댕의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작품도 생각하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이, 아마도 그 사람의 자세에 담겨 있겠죠. 하지만 형태뿐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목적 또한 중요합니다.

왜 이 조각상일까요?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례와 필요한 시야각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에서도 인공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 생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러한 네 가지 인과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물질적 원인은 어머니의 몸이다. 효율적 원인은 아버지이다. 형식적 원인은 아이가 잉태하게 될 아버지의 본질적인 본성이다.

그래서 마지막 원인은 자식이 부모를 꼭 닮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요점은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여성은 그저 물질적인 원인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인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논의에서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첫 두 장을 제외하고 『형이상학』 1권을 읽어보셨다면, 1권의 핵심 내용인 그의 선대 철학자들에 대한 주석에서 그가 초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오직 물질적 원인만을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 탈레스는 물이라고 답했습니다.

Anaximenes는 공기를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불. 엠페도클레스, 흙, 공기, 불, 물.

다들 물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효율적 원인도 개입하기 시작하네요.

특히 엠페도클레스처럼 사랑과 증오를 순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이야기하는 인물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암시도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에서 이미 예견됩니다. 아낙사고라스의 올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피타고라스의 수. 그리고 물론 플라노.

하지만 그가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면 막다른 길로 접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를 비판하는데, 그는 피타고라스를 플라톤 사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천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의 선대 사상가들에 대한 논의는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 중 선대 철학자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목적의 필연성입니다. 아, 아마 아낙사고라스에게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플라톤에게 있어서 형상, 즉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물의 본래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 납니다 . 그러나 그들은 자연에서든 인간 활동에서든, 모든 과정에 항상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강조점을 지금까지 발전해 온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공헌으로 여겼습니다.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00페이지를 보면, 그는 선대 신학자들에 대한 주석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300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근본 원인 또는 제1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원인은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중 하나는 본질, 즉 실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 또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화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이와 정반대되는 것의 원인은 바로 목적입니다. 선, 모든 세대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변화입니다. 여기서 그가 실체, 본질이라고 말할 때, 실체는 단순히 사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물의 본질, 즉 사물의 실체, 사물의 본성, 사물의 형태가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다음은 기질, 즉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적 원인, 변화의 근원, 네, 효율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목적, 선한 결과, 궁극적인 원인. 그래서 그는 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그는 물질의 본성 원리가 유일한 원리이자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초기 철학자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종류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을 다루게 됩니다. 302 페이지 첫 번째 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성이 자연 전체에 존재한다고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주 11은 아낙사고라스를 가리킵니다.

이성 과 올라미, 정신으로 조화롭게 배열한 온갖 종류의 씨앗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형식적 인과관계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엠페도클레스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3장 5절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목받게 됩니다. 6장 305 절에서는 플라톤이 집중 조명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에 대한 그의 논의가 306쪽 맨 위에서 참여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리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물이 수의 모방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플라톤은 참여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참여 나 모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큰 문제다. 개별적인 것들이 어떻게 형식에 참여하는가.

둘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그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며 306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7장에서 네 가지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물질의 제1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307장의 네 줄짜리 짧은 문단에서, 우정이나 갈등과 같은 움직임의 근원, 예를

들어 엠페도클레스와 같은 인물의 경우처럼, 그것이 바로 효율적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단락에는 본질이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목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바가 계속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아니, 물리학 부분 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381페이지입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현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체 에는 목적론, 의도, 그리고 본질적인 성취가 존재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자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필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381절부터 384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최종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플라톤이 형태를 질서의 원인으로 보고, 자연의 과정이 형태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무질서와 악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자연의 과정을 마치 감아 올리듯 조절하다가 놓아버리면 풀려나간다는 그의 말을 기억하시죠? 이해되지요?

그래서 두 가지 원리, 즉 하나와 다른 하나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때때로 이원론 이라고 부릅니다 .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물질적인 사물들을 선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까요? 만약 플라톤이 말했듯이 형상이 초월적인 실체이며,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리고 물질적인 사물들이 본질적인 형상을 결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물질적인 사물들이 발전 과정에서 선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재적인 형상 없이 어떻게 질서 있고 목적 있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은 사물의 타고난 속성, 즉 내적 목적론입니다 .

그는 그것을 자연적인 잠재력, 즉 가능성의 실현이라고 말하며, 이 가능성은 과정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는 모든 변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모든 변화 과정의 특징입니다 . 따라서 그는 자연은 결코 목적 없이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결코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 또 다른 곳에서는, 신과 자연은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 용도, 목적, 기능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존재들의 자연적 과정, 즉 무의식적인 행위 속에서도 목적과 유사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정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그 과정들 또한 목적 지향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에 자연적인 잠재력이 있다면, 예술가가 하는 일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죠 . 음악가는 음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물리적 특성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각가는 어떤 디자인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나뭇결이나 돌의 질감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겁니다.

예술은 발견의 문제가 된다 . 내 대학원 시절 교수님이 편집하신 미학 이론 책 중에 『창조와 발견』이라는 책이 있다. 창조와 발견.

그의 주장은 예술이 단순히 창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이 인간의 창조 능력을 마치 신성한 것처럼 미화한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술가의 창의성은 재료에 내재된 가능성을 구상하는 능력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 로 구현하는 것 . 발견. 자연이 지닌 잠재력, 내재된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작위적이거나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원인, 특히 효율적 원인의 복잡성 때문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 외에도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우연적 과정이 있을 때, 그는 이를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딘가로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한 사건이라고 해서 원인이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자연적인 과정과는 무관한 여러 가지 외적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개입하여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중 일부는 원래 과정이 목표로 했던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연을 이러한 관점에서, 즉 과정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연이 항상 과정 속에 있고, 항상 변화하며, 시간이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플라톤과 약간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간을 덧없는 것, 즉 영원하고 불변하며 항상 존재하는 현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변화하는 과정이 사물의 본질이라면, 시간은 단지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측정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는 시간을 운동의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속 몇 마일로 이동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마일/시간, 또는 피트/초 .

시간. 그리고 시간을 연속체로 인식하는 덕분에 그는 제논의 역설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토끼가 거북이를 절대 잡지 못하는 이야기, 닭이 길을 절대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논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캥거루의 깡충깡충 뛰는 동작 자체만 생각했던 거죠. 1분, 1초, 1시간에 몇 번 뛰는지 따지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은 필연적인 목적론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그가 자연에 대해 말하는 바는 엄청나게 중요해 집니다 . 중세 시대 내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모든 자연적 과정에는 정해진 목적과 목표가 있으며 , 자연 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자체의 자원이 세계 질서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일부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이러한 점에 반대했습니다. 윌리엄 오브 오컴은 이것이 자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러한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형상들에 종속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마틴 루터 역시 윌리엄 오브 오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 또한 루터나 오컴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과 강력한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신이 창조한 고유한 잠재력을 지닌 자연적 과정이라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적 형상 모델은 중세 시대 내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신학에 강력한 개념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세 말기에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도 살펴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가지 유형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이해되셨나요? 우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외부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연, 자연의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기가 발달하고 퍼져나가는 자연적인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발달하고 여름 저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자연적인 과정도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은 교차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기에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죠. 모기와 모기가 하는 일은 인간 본연의 모습과는 무관한 외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필연적 원인이 있는 겁니다.

또한 외적인 우연적 원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외적인 우연적 원인들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아시다시피,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예를 들까요? 네, 어머니가 당신을 임신했을 때 섭취했던 음식이 당신의 체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

자연적인 유전 과정은 끝이 나죠, 그렇죠? 하지만 그 후에 그녀의 식단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당신 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 여기서 그가 사용한 '원인'이라는 단어는 그의 '원칙'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학 의 근본 원리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근본 원리란 무엇일까요 ? 과학자가 하려는 것은,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생명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학은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과학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론자였습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화학적 과정과는 다른 무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어하는군요.

그는 관련된 물질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하는 인과 과정, 즉 작용하는 힘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즉 텔로스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이러한 생물학적 과정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따라서 과학자는 특정 과학 분야 에서 정의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과학자의 과학관은 이러한 원리들을 정립할 수 있다면 특정한 사례 에 대해 온갖 것들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의 과학 모델은 전제를 세우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러한 과학 개념은 14세기 경험적 방법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를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수정했는데, 그는 수학적 추론을 과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원리는 공리가 되고, 기하학에서처럼 온갖 추론이 이루어지는 자명한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과학철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저는 원인을 제1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동의어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설명 요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변화 등 모든 종류의 변화 과정을 설명 할 때 사용됩니다.

법의 제도처럼 어떤 현상이 생겨난 이유를 설명할 때는 네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져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법학 논문에서 법을 이성의 질서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형식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공동선은 목적적 원인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가 만든 것, 그것이 효율적 원인입니다. 공동체에게는 물질적 원인이고요 . 본질적으로 같은 네 가지 원인이 다시 반복되는 셈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창조에는 효율적 원인, 즉 신이 있고, 형식적 원인, 즉 신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본질은 신을 닮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창조는 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원인은 없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네,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 틀은 기계론적 과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세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일어난 과학 혁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론적 과학은 효율적 원인, 즉 힘을 인정하고, 물질적 원인, 즉 물질의 입자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운동, 물질과 힘, 이것이 뉴턴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뉴턴 물리학은 형식적 원인이나 목적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뉴턴 과학은 반쪽짜리 과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뉴턴 이후 경험주의가 발전하면서 흥미로운 다음 단계가 나타납니다. 데이비드 흄 같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데이비드 흄은 단순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 원인에 대해서도, 물질적 원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흄의 결론은 무엇이였을까? 그는 자연에 대한 모든 지식에 회의적이었다. 우리는 현재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짧은 질문에 긴 답변을 하시네요, 칼.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내 연습은 이 칠판들을 지우는 것이다. 존재와 그 범주들.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과학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존재의 과학. 하지만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것에 존재를 부여해 보세요. '존재'라는 개념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그는 '존재의 범주'라고 부릅니다. 존재의 범주.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인 셈이죠.

하지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물이 존재하는 한 가지 방식,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물질로서의 사물입니다. 이것이 그가 제시한 첫 번째 범주입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는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물질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314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범주 목록을 살펴보세요. 314.

이 내용은 그의 저서 『형이상학』 4권 2장에 나옵니다. 페이지 맨 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사물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중심점과 관련되어 있다. "

한 가지 확실한 종류입니다. 단순히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칼럼 중간쯤에서 그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해지고, 어떤 것들은 실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해지며, 또 어떤 것들은 실체를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해진다.

과피 또는 물질의 결핍 또는 속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생성하는 것. 또는 물질과 관련된 것들.

혹은 실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것들 중 하나 또는 다른 것들의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언급하는 존재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그의 다소 백과사전적인 과학적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검은색이에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죠.

둥글어요. 저게 모양 이에요 . 저기 있어요.

그것은 공간적 위치입니다. 바로 여기였죠. 그것은 시간적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사고의 범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들은 사고의 범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재의 범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측하며 노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요 ?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구분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적인 구분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존재, 단순히 물리적 존재, 역사적 존재, 경제적 또는 정치적 존재 등 존재 자체에는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존재의 과학은 이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 잠깐만요. 그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범주들을 다시 언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론 과정, 논리적 과정에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같은 용어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모순율입니다. 즉, 어떤 사물은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어떤 사물이면서 어떤 사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존재의 범주 외에도,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분은 사고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존재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사고의 법칙은 존재의 법칙에 상응합니다. 316페이지를 펴보세요. 316 페이지와 317페이지, 아니 그 이후 10 페이지에 걸쳐 그는 사고의 기본 법칙, 즉 모순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동시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어떤 사물은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317페이지 첫 번째 열 중간에서 가장 확실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원칙 중에서 가장 확실한 원칙이며, 이에 대해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설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원칙,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러한 원칙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속성이 동일한 주체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고 속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율에 대한 그의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키가 크면서 동시에 키가 작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없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는 두 번째 열 맨 위에 누군가가 같은 것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즉,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점에서 참이면서 거짓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같은 면에서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실 때 "이게 맞나요, 아니면 틀린가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측면에서 A일 수도 있고 A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같은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원리를 증명할 수 있는냐는 겁니다. 이 논리 법칙에 대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니요, 일반적인 의미의 실증적 증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려면 먼저 논리의 법칙을 가정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환 논증 없이 긍정적인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는 부정적인 증명, 즉 부정적인 증명을 제시합니다.

로크는 318쪽 첫 번째 열 중간쯤에서 그러한 논증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있거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어떤 말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아무 의미도 없다면, 그는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도 논리적으로 추론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증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명의 책임자는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그는 이성을 부정하면서도 이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자, 그럼 다음 열, 바로 맞은편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하나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남자' 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남자라는 것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자라는 것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면,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요점은 부정적 시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려고요.

알았지? 칼, 뭐라도 말해 봐. 명제든, 주장이든. 카펫은 빨간색이야.

양탄자는 빨간색입니다. 자, 양탄자가 빨간색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빨간색이 아니라는 건가요?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양탄자가 동시에 빨간색이면서 빨간색이 아닐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당신은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칼이 모순율이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칼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칼, 당신은 모순율이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거짓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모순율은 거짓이거나 거짓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 되시죠? 모순율이 거짓이라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순율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 해야 합니다. 모순율은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거짓이면서 거짓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의미 있는 말을 하려면 모순율을 가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주장하려면 먼저 그것을 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려면 또 먼저 그것을 가정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라면, 즉 부정하려면 먼저 그것을 가정 해야 한다면, 다시 말해 부정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라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참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선언적 삼단논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모순율은 참이거나 거짓 입니다. 만약 모순율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자기모순적이라면, 즉 모순율을 부정 하려면 먼저 모순율을 가정 해야
하므로 자기 모순적이라면, 그 거짓은 그 자체로 거짓입니다 .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그 법칙이 참이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죠, 그렇죠?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모순에 빠지게
한다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거짓 자체가 거짓이라면, 논리적으로 그것은
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입니다. 그는 이것을 모순율의 부정적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모순율을
위반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 말을 해보라고 도전할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물론,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를 지껄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동시에 참이면서 거짓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겔의 변증법적 정, 반,
합이 모순율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헤겔의 논리학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헤겔은
명시적으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자명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과정을 다룰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는 명제가 적용되고, 그 다음 시점에는
반명제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지 나요? 그러니까 a와 non-a가
존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에, 같은
맥락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겔은 시대에 관심이 많았고, 역사철학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모순율은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논리는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 인지적 의사소통,
언어의 모든 사용은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순율 말입니다.